

기독교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영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검증*

배은주**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제주도 제외) 기독교인 456명(중학생 181명, 고등학생 138명, 대학생 137명)을 대상으로 부부폭력 목격경험, 폭력비행 및 영적 안녕감을 측정하고 각 학교급별에 따른 각 변인별 차이를 F검증하였다. 또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고,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별에 따라 부부폭력 목격경험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폭력비행과 영적 안녕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폭력비행과 영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안녕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기독교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중요한 원인이 되며, 그들의 영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폭력비행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의 제언과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부부폭력 목격경험, 폭력비행, 영적 안녕감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8579).

** 성결대학교 신학부 시간강사

2015년 7월 2일 접수, 8월 6일 최종수정, 8월 26일 게재확정

1. 서론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청소년 범죄를 보면, 저연령화되고, 정도가 심각해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2012년 4월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은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반영했다(조선일보 2012년 5월 2일자, 2013년 5월 9일자). 2014년 발표된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20명 중 1명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조사되었다(욕설, 폭언 56.2%, 집단따돌림 38.2%, 구타 28.1%). 또한 2014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48천명(1.2%)이며(언어폭력 35.4%, 집단따돌림 16.8%, 폭행 11.8%), 목격경험이 있는 학생은 141천명(3.5%)에 이른다. 2015년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서도 학교폭력이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 2015년 6월 24일자). 이처럼 청소년의 폭력비행이 그 수위와 정도가 심각해 지고 지속적으로 표면화되면서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청소년의 가출,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약물오남용, 게임중독, 성매매 및 자살 등과 같은 비행행동은 단순히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의 경쟁력과 생산력에 방해요인이 된다.

폭력비행은 행위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신체적 피해, 언어적, 정서적 공격을 통한 심리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이는 비난, 폭언, 인격적 무시, 위협, 집단구타, 기물파손 등과 같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조춘범, 임진섭, 2010: 202). 특히, 가족 내에서 부부 간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작용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부부폭력으로 정의하며, 이는 광의적으로 가정폭력에 포함된다(Martin, 2007: 32-33). 여성가족부는 2013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부부폭력 발생률은 45.5%에 이른다. 요인별로는 정서적 폭력(37.2%), 방임(27.3%), 신체적 폭력(7.3%), 경제적 폭력(5.3%), 성학대(5.4%)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은 상대적 약자인 자녀에게 악영향을 초래한다(Carlson, 1990: 285-299; David & John, 1998: 339-357; Baldy, 2003: 713-732; Renner, 2005; Fusco, 2008; Wu & Chao, 2011: 493-508; Kimball, 2012). 자녀는 부모가 결혼생활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통해 인격형성과 사회적 관계를 학습하게 된다(Davis, 2007: 53). 따라서 부부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자녀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및 사회적 성장과 성숙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노충래, 김현경, 2004; Aymer, 2005; 김상균, 2005: 72-73; Park, 2011; 이승출, 2012: 116-135; Berzins, 2014). 부부폭력은 자녀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 자녀는 심리적으로 불안, 우울, 분노, 집중력 결핍, 정서장애 등에 취약하며, 비행행동을 보이면서 범죄 및 폭력의 세대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Jouriles & Norwood, 1995: 69-78; Parrott, 2000: 302; Dauvergne & Johnson, 2001: 21; Veronica & Laura, 2001: 1037-1051; Granic & Lamey, 2002: 265-283; 박은미, 이시연, 2007: 299-316; 최혜정, 2012: 157-182).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대경험은 청소년의 자살생각 유발변인으로 분석된다(문동규, 김영희, 2011: 945-964; Brockie, 2012; 김정란, 김혜신, 2014). 아동 학대 피해자는 성인이 되면서 학대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폭력적인 배우자나 부모가 될 가능성이 많다(Straus, Gelles, Steinmetz, 1980: 109; Martin, 2007: 30).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30~60%는 자신이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Parrott, 2000: 72). 이는 역설적으로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양육된 자녀가 심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폭력은 신앙생활에 의해 중재되거나 예방이 가능하다(길옥연, 2002; 김성수, 장성수, 2010; 최병필, 2015). 왜냐하면, 인간은 신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문제해결에 실마리를 찾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안녕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영적 안녕감 중 종교적 안녕감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며, 삶에 깊이 연관된다는 신념을 내포한다(이진화, 2012: 8). 또 실존적 안녕감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만족감과 행복감을 경험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영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안녕감의 수준은 건강한 신앙생활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기독교 가치관에서 폭력은 인간의 죄성에 근거한다. 더욱이 부부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는데, 성경은 출애굽기 34장 7절, 레위기 26장 39절에서 부모의 죄와 악이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언급한다(Martin, 2007: 29).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다(길옥연, 2002; 황규명, 2011: 37-63). 이를 증명하듯, 기독교신앙을 가진 청소년의 신앙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우향숙, 최은실, 2013:

428-429). 또한 실존적 안녕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과 같은 비행행동이 낮고, 심리적으로 덜 우울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신앙은 비행과 부적 상관을 갖고, 청소년 비행에 매개변인이 된다(김성수, 장성수, 2010: 33-49; 신성만 외, 2011: 1628-1673).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 청소년의 폭력비행과 개인의 영적 차원인 종교적 신념 및 삶의 태도에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자녀가 부부의 폭력장면을 목격한 경험이 향후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관계에서 영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별에 따라 부부폭력 목격경험, 폭력비행, 영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폭력비행과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영적 안녕감은 매개 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분석을 위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소재한 교회에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하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원거리로 이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적 제약이 있는 곳에는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은 총 500부가 배부되었으며, 그 중 480부가 수거되었고,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기재가 미비한 24부를 제외하고 총 45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는 조사 당시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으로 중학생 181명, 고등학생 138명, 대학생 137명이다.

2. 측정도구

1) 부부폭력 목격경험

본 도구는 스트라우스(Straus, 1979)의 갈등관리행동 척도(The Conflict Tactics Scale: CTS)를 조춘범(2008)이 수정, 보완하여 부부 간 폭력목격 척도로 사용한 것이다. 총 10문항이며, 언어적 폭력, 경미한 신체적 폭력, 심각한 신체적 폭력 여부 및 정도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채점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조춘범(2008)의 연구에서 크론바 알파(Cronbach's α) = .92이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아버지의 폭력이 Cronbach's α = .84, 어머니의 폭력이 Cronbach's α = .74이다.

2) 폭력비행

본 도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사용한 폭력비행에 관한 척도를 조춘범(2008)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이며, 정서적 폭력비행 4문항, 신체적 폭력비행 4문항, 기물파괴 1문항, 금품갈취 1문항으로 구성된다. 채점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비행이 높은 것을 뜻한다. 신뢰도는 조춘범(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7이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 .73이다.

3) 영적 안녕감

본 도구는 팔로우지안(Paloutzian)과 엘리슨(Ellison, 1982)이 개발한 영적 안녕감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SWBS)를 이진화(2012)가 우리나라 정서와 문화에 맞게 타당화한 것이다. 문항은 실존적 안녕감과 종교적 안녕감으로 구성되며, 역산문항은 1, 2, 5, 6, 9, 12, 13, 16, 18번으로 역산채점한다. 채점은 리커트(Likert)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이진화(2012: 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93이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 .90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내적일치도 계수 크론바(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타당도 분석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하여 문항을 요인으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셋째, 학교급별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원-웨이 아노바(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넷째, 부부폭력 목격경험, 영적 안녕감, 폭력비행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1.0,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259	56.8%
	여자	197	43.2%
학교급별	중학생	181	39.7%
	고등학생	138	30.3%
	대학생	137	30.0%
거주지	서울특별시	77	16.9%
	경기도	190	41.7%
	강원도	36	7.9%
	전라도	63	13.8%
	충청도	44	9.6%
	경상도	46	10.1%
구원확신	예	429	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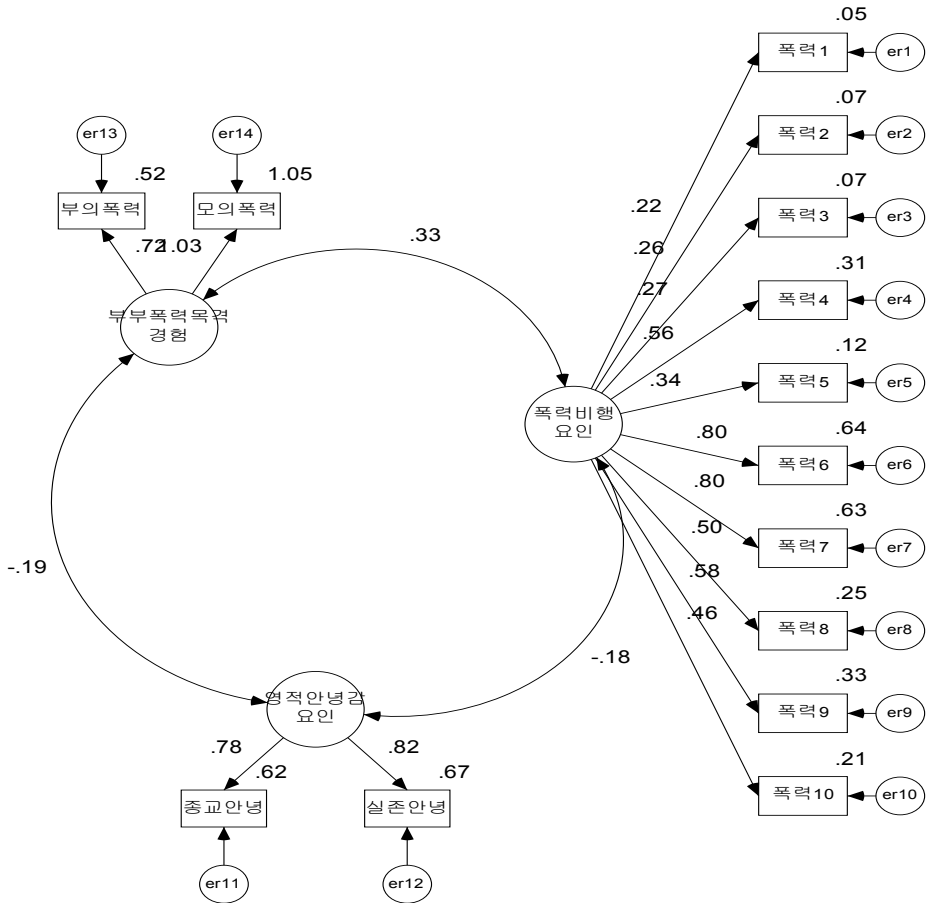
	구분	빈도	%
	아니오	27	5.9%
부모님 동거유형	현재 함께 생활함	408	89.5%
	사별, 별거, 이혼	32	7.0%
	해외근무, 주말부부	16	3.5%
부모님 결혼연수	15년 이하	47	10.3%
	16-20년	194	42.5%
	21-25년	137	30.0%
	26년 이상	78	17.1%
부부싸움 유무	있다	322	70.6%
	없다	55	12.1%
	모르겠다	79	17.3%
부부싸움 목격경험	있다	303	66.4%
	없다	153	33.6%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56.8%, 여성 43.2%로 남성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39.7%,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각각 30%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기도 41.7%, 전라도 13.8%, 경상도 10.1% 순으로 나타났다. 구원확신 여부는 94.1%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동거유형은 현재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8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 결혼연수는 16-20년이 42.5%로 가장 높고, 21-25년이 30%, 15년 이하가 10.3%로 나타났다. 부부싸움 유무의 경우에 70%정도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부싸움을 목격한 경험은 66.4%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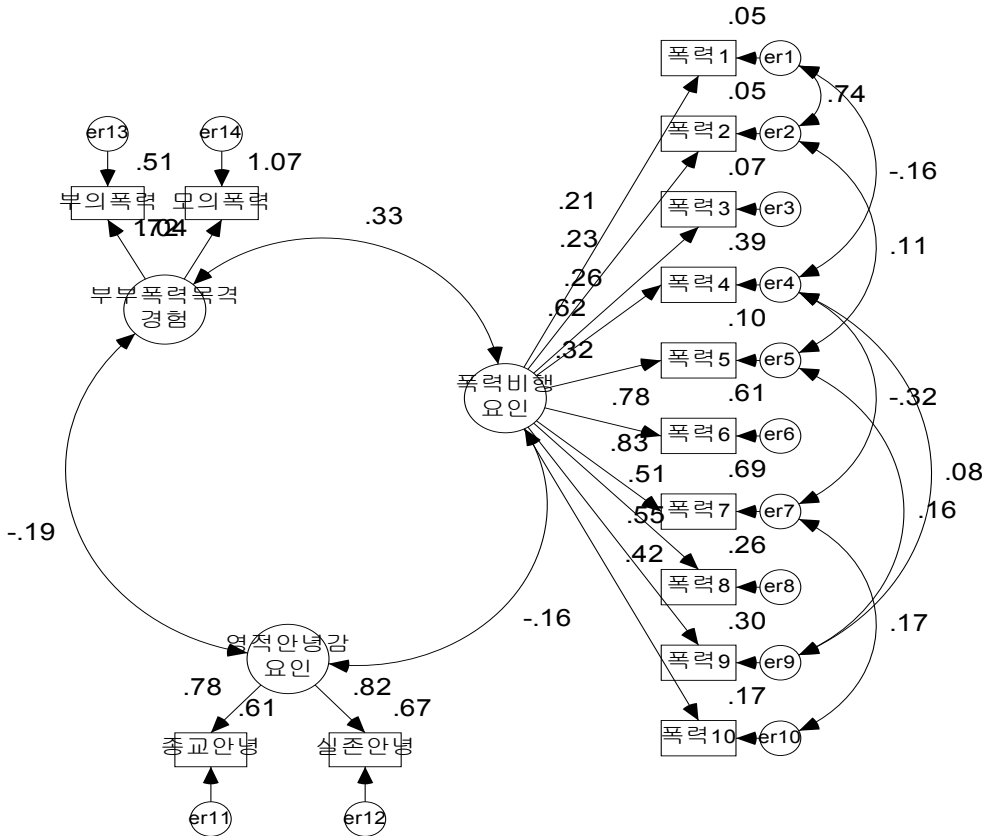
2. 측정도구의 타당성 평가

부부폭력 목격경험, 영적 안녕감, 폭력비행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으로 연구단위별 단일차원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수정 모형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지수

	χ^2	RMSEA	Q값	NFI	CFI	GFI	AGFI	TLI	Delta 2
모형	595.78	.124	8.051	.713	.737	.870	.816	.677	.740
수정	130.13	.046	1.942	.937	.968	.960	.938	.957	.969

<그림 1>,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분산 구조모형이 연구가설에 적합한 정도를 알아본 결과, 확인적 연구모형이 적합도가 낮아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합도는 $\chi^2=130.13$, $p=.000$, $Q=1.94$, $RMSEA=.046$, $NFI=.937$, $CFI=.968$, $GFI=.960$, $AGFI=.938$, $TLI=.957$, $\Delta 2=.969$ 으로 분석되어 구조 방정식의 모형은 검증되었다. Q값은 자유도의 증감에 따른 χ^2 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3보다 적어야 전반적인 적합도를 만족하며, 8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수치이다. RMSEA는 .05 이하, NFI, CFI, GFI, TLI는 .90 이상이면 적합하다(김대업, 2008). 또한 $\Delta 2$ 는 표본 수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는 NFI 값을 조정한 값으로 .90이상이면 적합하다. 여기서 AGFI와 TLI는 .8점대로 나타났으나, 다른 수치가 높게 나타나 적합도는 검증되었다.

〈표 3〉 전체 요인별 집중 타당성 분석결과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C.R.	AVE	개념 신뢰도	
부의 폭력	<-	부부폭력	.716	1.000		0.808	0.880	
	<-	목격경험						
모의 폭력	<-	부부폭력	1.035	.920	.121	7.613***		
	<-	목격경험						
실존적 안녕감	<-	영적 안녕감	.821	1.000		0.692	0.783	
	<-	종교적 안녕감	.783	1.427	.321			4.446***
폭력1	<-	폭력비행	.212	1.000		.756	.798	
폭력2	<-	폭력비행	.227	1.424	.234			6.077***
폭력3	<-	폭력비행	.259	1.725	.518			3.330***
폭력4	<-	폭력비행	.625	3.511	.895			3.923***
폭력5	<-	폭력비행	.315	3.228	.902			3.579***
폭력6	<-	폭력비행	.781	4.023	.959			4.194***
폭력7	<-	폭력비행	.828	4.315	1.030			4.189***
폭력8	<-	폭력비행	.507	2.433	.608			4.003***
폭력9	<-	폭력비행	.549	4.185	1.036			4.038***
폭력10	<-	폭력비행	.415	2.101	.552			3.803***

*** p<.001

평균분산추출량은 일반적으로 0.5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수용되는데, 이는 항목들의 분산 중 1/2은 구조에 의해 설명될 수 있어야 그 항목들을 수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학식, 임지훈, 2013).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서 사용된 구성 개념 간의 평균분산추출량은 <표 3>과 같다.

또한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각 연구단위별 척도들에 대해 서로의 관계가 어떠한 방향이며,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부부폭력 목격경험, 영적 안녕감, 폭력비행의 상관관계 결과표

	부의 폭력	모의 폭력	폭력비행	영적 안녕감	종교적 안녕감	실존적 안녕감
부의 폭력	1					
모의 폭력	.741***	1				
폭력비행	.173***	.266***	1			
영적 안녕감	-.188***	-.162***	-.171***	1		
종교적 안녕감	-.188***	-.162***	-.171***	1.000***	1	
실존적 안녕감	-.142***	-.167***	-.160***	.643***	.643***	1

*** p<.00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폭력 목격경험, 영적 안녕감, 폭력비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변인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별계수도 일정수준인 0.5이상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학교급별에 따른 각 변인별 차이

1) 학교급별에 따른 부부폭력 목격경험의 차이

<표 5>는 학교급별에 따른 부부폭력 목격경험의 차이를 F검정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급별에 따른 부부폭력 목격경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학교급별에 따른 부부폭력 목격경험의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학교급	중학생(a)	181	21.5691	4.33102	.411	.663	
	고등학생(b)	138	22.0290	5.66967			
	대학생(c)	137	21.6861	3.52669			
	계	456	21.7434	4.56672			

2) 학교급별에 따른 폭력비행의 차이

〈표 6〉은 학교급별에 따른 폭력비행의 차이를 F검증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별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폭력비행의 값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생의 평균은 대학생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중학생이 대학생보다 폭력비행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표 6〉 학교급별에 따른 폭력비행의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학교급	중학생(a)	181	10.7956	2.15179	3.651*	.027	a>c
	고등학생(b)	138	10.5072	1.76853			
	대학생(c)	137	10.2701	.84456			
	계	456	10.5504	1.74207			

* $p < .05$

3) 학교급별에 따른 영적 안녕감의 차이

〈표 7〉은 학교급별에 따른 영적 안녕감의 차이를 F검증한 것이다. 표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영적 안녕감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서이다. 이는 중학생 보다 대학생의 영적 안녕감이 높으며, 통계적으로 학교급별에 따라 영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학교급별에 따른 영적 안녕감의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학교급	중학생(a)	181	91.0552	14.74928	15.484***	.000	a>b, b<c, a<c
	고등학생(b)	138	86.2681	15.41046			
	대학생(c)	137	96.5766	16.12667			
	계	456	91.2654	15.85518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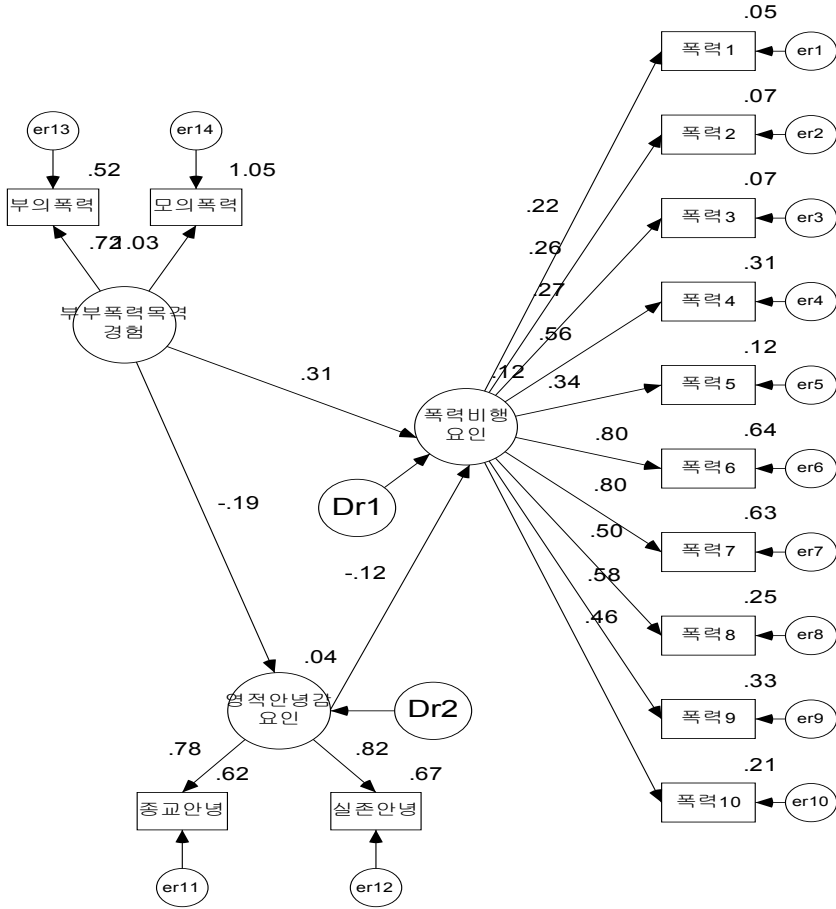
4.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연구모형의 경우에 다소 수치가 적합도에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수정지수의 공변량, 잔차를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차항 등 연결하여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가 130.13, NFI는 .937, CFI는 .968, GFI는 .960, AGFI는 .938, TLI는 .957, RMSEA는 .046로서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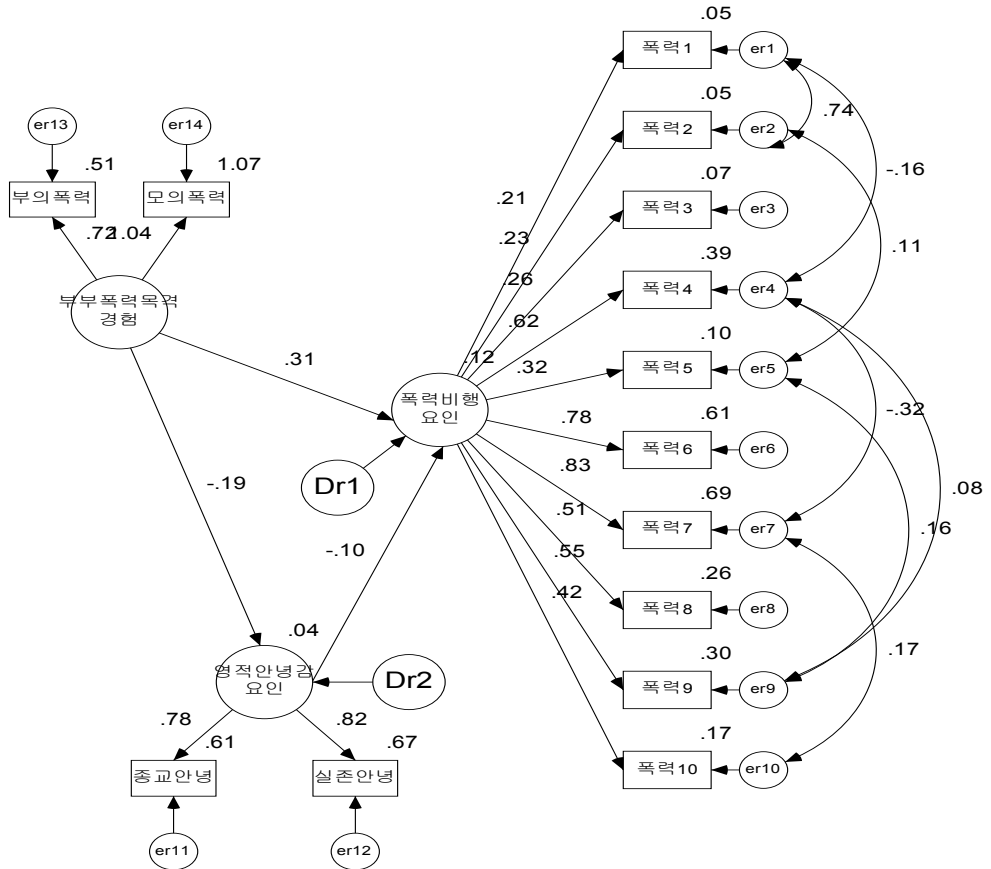
〈표 8〉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RMSEA	Q값	NFI	CFI	GFI	AGFI	TLI	Delta 2
연구모형	595.78	.124	8.05	.713	.737	.870	.816	.677	.740
수정모형	130.13	.046	1.942	.937	.968	.960	.938	.957	.969

[그림 3]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그림 4] 연구모형의 수정모형



1)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폭력비행과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표 9〉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S.E.	C.R.	P
영적 안녕감 <- 부부폭력 목격경험	-.192	-.515	.146	-3.529***	.000
폭력비행 <- 부부폭력 목격경험	.313	.007	.002	3.547***	.000
폭력비행 <- 영적 안녕감	-.104	-.001	.001	-1.682	.093

*** p<.001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경로계수 ($\beta = -.192, p = .000$)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경로계수 ($\beta = .313, p = .000$)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영적 안녕감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경로계수 ($\beta = -.104, p = .09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영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높을수록 폭력비행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2)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영적 안녕감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표 10〉 매개효과 분석

		부부폭력 목격경험	영적 안녕감
총 효과	영적 안녕감	-.192*	.000
	폭력비행	.333**	-.104*
직접 효과	영적 안녕감	-.192*	-
	폭력비행	.313**	-.104*
간접 효과	영적 안녕감	-	-
	폭력비행	.020*	-

* $p < .05$, ** $p < .01$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인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영적 안녕감이 매개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에 대한 직,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유의도는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영적 안녕감에 $-.192$ 로 부적(-) 유의미한 경로를 보였다($p < .05$).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폭력비행 요인에 $.333$ 로 정적(+) 유의미한 경로를 나타냈다($p < .01$). 또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020$ ($p = .031$)로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안녕감이 매개역할을 한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인으로 교회에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관계에서 영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별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부폭력 목격경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폭력비행과 영적 안녕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폭력비행은 중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별이 낮을수록 폭력비행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적 안녕감은 대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폭력경험이 있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비행률을 보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신선인, 2008). 따라서 중학생의 폭력비행에 대한 예방, 개입, 중재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부부폭력 목격경험은 영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폭력비행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적을수록 영적 안녕감이 높고, 폭력비행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부부폭력이 청소년 자녀의 비행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신선인, 2008).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그들의 가족사를 바탕으로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탐색을 면밀히 하고, 개입방법을 발달과정에서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셋째, 부부폭력 목격경험은 영적 안녕감과 폭력비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고, 폭력비행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안녕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폭력비행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에서 그들의 기독교신앙심을 고취하고,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부부 간 폭력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비행행동 즉,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부부폭력이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및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세대 간 대물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정준미, 1998). 그러나 선행연구는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발달영역에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라면,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세부적이고 일차적 대상인 부부폭력을 다루었다는 점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부부폭력이 기독교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므로 이에 대한 개입방안으로 기독교상담 및 목회상담에 적용가능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는 기독교인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갖는 폭력비행과 영적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를 단순히 분석하는 정도에서 머물렀다면, 본 연구는 기독교인의 종교적 신념과 삶의 태도에 나타나는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영적 안녕감의 역할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므로 기독교상담 현장에 실증적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목회상담과 가족상담을 통합하는데 이론적 기틀을 제공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다룬 영적 안녕감은 기독교 청소년의 현상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상담 및 목회전략에 기초적 자료가 된다.

궁극적으로 부부폭력 목격경험은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및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또한 그것이 폭력행동 간의 개연성을 높이고, 학교폭력이나 폭력 등과 같은 비행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상담적 개입에 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폭력 목격경험자의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기 위해 비합리적 신념을 발견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Wright, 2014: 451-452). 그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라 부정적 감정 다루기와 용서에 대한 상담학적 접근이 필요하겠다(Dishion & Kavanagh, 2011: 125-127). 둘째, 부부폭력의 근원인 부부갈등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제시한다. 건강한 의사소통은 부부갈등으로 초래된 가정불화를 상당 부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배우자 간, 부모-자녀 간 경청과 갈등 협상에 중점을 두는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Davis, 2007: 58; Dishion & Kavanagh, 2011: 134-135). 셋째,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많을수록 자녀의 공격성, 반사회성 및 폭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들의 분노조절방법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요구된다(Martin, 2007: 35). 또한 신앙심이 내재적 동기가 되어 폭력비행을 중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신앙심 고취와 신앙성숙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본 연구는 기독교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저변을 확대하고, 실증연구의 한계를 넘기 위해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폭력비행이 점차 저연령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연구대상의 밀도있는 관찰을 위해서는 초등학생에 대한 심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별 분석도 필요하다. 각 종교별 신앙 정도와 종교적 신념 및 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폭력과 비행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Aymer, S. R. (2005). “*Exposure: an exploratory study of adolescent males’ coping responses to domestic violence*”. Ph. D., New York University.
- Baldry, A. C. (2003). “Bullying in schools an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 Neglect*. 27. 713-732.
- Berzins, A. R. (2014). “*Resilience as a moderat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violence and affect among ecuadorian youth*”. Psy. D., St. John’s University(New York).
- Brookie, T. N. (2012). “*Historical and contemporary factors influencing non-lethal suicidal behavior among reservation-based native american youth*”. Ph. 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Community-Public Health.
- Carlson, B. E. (1990). “Adolescent observers of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5. 285-299.
- Dauvergne, M. & Johnson, H. (2001). *Children witnessing family violence*, Juristat, Statistic Canada.
- David, M. F. & John, H. (1998). “Exposure to interparental violence in childhood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young adulthood”. *Child Abuse & Neglect*. 22(5). 339-357.
- Davis, M. W. (1993). *Divorce busting: A Step-by-step approach to making your marriage loving again*. 이인수 외 역 (2007). 『부부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Dishion, Thomas J., & Kavanagh, K. (2003). *Intervening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 family-centered approach*. 양명숙 외 역 (2011). 『청소년 문제행동 상담』. 서울: 학지사.
- Fusco, R. A. (2008). “*Domestic violence crimes and child exposure: A population-based investigation of direct sensory exposure and the nature of involvement*”. Ph. D., University of Pennsylvania.
- Granic, I. & Lamey, A. V. (2002). “Combining dynamic systems and multivariate analyses to compare the mother-child interactions of externalizing subtyp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 265-283.
- Jouriles, E. N. & Norwood, W. D. (1995). “Physical aggression toward boys and girls in the families charaterized by the battering of woman”. *Journal of*

- Family Psychology*. 9. 69-78.
- Kimball, E. (2012). "Examining the relationship: fathers' parenting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on family violence". Ph. D., University of Minnesota Social Work.
- Martin, G. (1988). *Counseling for family violence and abuse*. 김연 역 (2007). 『가정 폭력과 학대』. 서울: 두란노.
- Park, A. (2011). "The Impact of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on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and antisocial behavior across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h. 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Social Welfare.
- Paloutzian, P. E.,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New York: John Wiley & Sons.
- Renner, L. M. (2005). "An Integrated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physical family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Ph. D., The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 Straus, M. A. & Gelles, R. J. (1979). Determinant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of theoretical integration.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Free, 549-581.
-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tz, S. K. (1980). *Behind closed door: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Grand City, N.Y.: Anchor.
- Veronica, M. H. & Laura, A. M. (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risk for delinquency among youth exposed to family violence". *Child Abuse & Neglect*. 25. 1037-1051.
- Wright, N. H. (2003). *New guide to crisis & trauma counseling*. 금병달, 구혜선 역 (2014). 『트라우마 상담법』. 서울: 두란노서원.
- Wu, C. & Chao, R. K. (2011). "Intergenerational cultural dissonance in parent - adolescent relationships among chinese and european americans". *Developmental Psychology*. 47(2). 493-508.
- 교육부 (2014). "학교폭력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김대엽 (2008).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학현사.
- 김성수, 장성수 (2010). "종교정향 및 신앙성숙과 심리적 안녕감, 비행, 친사회적 행

- 동과의 관계.” 『학교심리와 학습컨설팅』 . 2(2). 33-49.
- 김상균 (2005). 『폭력의 심리학』 .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 김정란, 김혜신 (2014).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 34(2). 310-333.
- 길옥연 (2002). “*Study on the Christian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the prevention of a juvenile delinquent.*” Thesis (doctoral). Faith Christ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 노충래, 김현경 (2004). “중학생의 부부폭력 목격경험,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해여부의 공존성 및 학교폭력 가해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사회복지연구』 . 5. 79-107.
- 문동규, 김영희 (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유발변인의 메타회귀분석.” 『상담학연구』 . 12(3). 945-964.
- 박은미, 이시연 (2007).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인터넷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 8(1). 299-316.
- 신선인 (2008).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동,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 23. 153-182.
- 신성만 외 (2011). “청소년의 실존적 영적 안녕감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 12(5). 1628-1673.
- 이승출 (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 29. 116-135.
- 이진화 (2012). “영적 안녕감 척도의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학식, 임지훈 (2013).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20.0』 . 서울: 집현재.
- 여성가족부 (2013).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우향숙, 최은실 (2013). “중학생의 신앙성숙도, 신앙배경, 신앙경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신앙을 가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 2013(1). 428-429.
- 정준미 (1998). “부모의 아동기 폭력 경험과 자녀체벌과의 관계모형.”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조준범 (2008).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게임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조준범, 임진섭 (2010). “청소년의 부모-자녀상호작용이 인터넷 게임중독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존중감과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 17(9). 197-226.

- 최병필 (2015). “반사회적 경향성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연구: D. W. Winnicott의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 최혜정 (2012). “부부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자녀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 20(2). 157-182.
- 통계청 (2014). 『청소년통계』 . 대전: 통계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규명 (2011). “학교폭력에 나타나는 마음의 문제: 성경적 상담의 관점.” 『복음과 상담』 . 16. 37-63.
- 조선일보. 2012년 5월 2일자. “대학생 도심공원서 잔혹 피살...범인은 高 1·2 남녀.”
- 조선일보. 2013년 5월 9일자. “신촌대학생 살인사건 10대 2명 소년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확정.”
- 한겨레. 2015년 6월 24일자. “학생부 기재 대책에도 ‘학교폭력’ 못 막았다.”

ABSTRACT

The Effect of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mong Christian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on their Violent Delinquency: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Eun-Joo Bae (Sungky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on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exposure on violent delinquency among christian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er used the One-way ANOV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performed on data from 456 students (181 middle school, 138 high school, and 137 college) throughout Korea (excluding Jeju Province) to assess their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violent delinquency, and spiritual well-be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violent delinquency and spiritual well-be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 college students. Secon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had significant effects on violent delinquency and spiritual well-being. Third, spiritual well-being was verified to mediate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exposure on violent delinquency. This suggests that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is a major cause of violent delinquency in youths. Furthermore, improving their spiritual well-being will help reduce violent delinquency. Based on these results, recommendations are made concerning possible improvements to the present study, and future study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Christian,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s, Domestic Violence, Violent Delinquency,
Spiritual Well-Being